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김 미 예¹⁾ · 박 완 주²⁾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 Abstract =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and Disposition to Delinqu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Mi Ye¹⁾ · Park, Wan Ju²⁾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and disposition to delinqu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5 to October 30, 2005. The subjects were 223 middle school students in 2nd grade in G cit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variable of ego-resilience to stress coping styles and disposition to delinquenc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anonical correlation with SAS 9.1 TS, and Pearson's correlation with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with SPSS 14.0 K. **Result:** Ego-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tive coping styles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assive coping styles, and disposition to delinquency.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of 5 sub-domains of ego-resilience showed that curiosity made the highest contribution to predicting stress coping styles and vitality made the highest contribution in predicting disposition to delinquency in middle school student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ego-resilience for adolescents is important to improv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decrease delinquency. Therefore, to increase ego-resilience, Stress Coping Programs should include curiosity and Delinquency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include vitality.

Key words :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Delinquency Disposition

주요어 :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방식, 비행성향

교신저자 : 박완주(E-mail: wanjupark@knu.ac.kr)

투고일: 2008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2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Wan Ju(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 2-ga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77 Fax: 82-53-425-1258 E-mail: wanjupark@kn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그 발달 단계적 특성과 맞물려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다. 현대사회와 같이 물질주의의 팽배, 가치관의 혼돈, 경쟁적인 입시제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사회병리학적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뚜렷하지 못한 아동과 성인의 주변인(marginal person)인 중학생은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Roberts(1981)에 따르면 초기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쉬우며 현실적용 사이에서 과중한 스트레스 노출로 긴장과 혼동을 경험하며 특히 낮은 자아와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은 부적절한 대처방법으로 약물남용, 음주, 그리고 가출과 같은 비행행동을 이끈다.

중학생의 자아발달은 발달단계 과업 중 하나이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비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그들의 적응문제는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자아개념 중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균형과 개인의 대처적응 능력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예기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아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단일차원의 총체적 자아 존중감과 달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의 다 영역 개념으로 다루어져왔다(Ko, 2006).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을 다른 차원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체적인 중요성만 부각되었고 어떠한 영역이 종속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논문결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속에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는 대응행동으로(Billings & Moos, 1984)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자아탄력성의 구체적 영역을 제시하지는 못했다(Chang, 2003).

비행행동으로 가는 바로 이전의 강한 경로인 비행성향은 언제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비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 성질의 경향이다(Kim, 2000; Jang, 2006). 비행성향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비행성향의 행동화를 통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결과(Jang, 2006)를 보고하였으나 구체적 영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연구자

마다 임상영역에서 자아를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비행성향에서의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는 선행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형성과 증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Ko & Yun, 2007).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와 건강증진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인간의 일탈행동이 자아탄력성의 역기능에 의해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아탄력성과 중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중학생의 비행성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응능력요인인 자아탄력성의 어떠한 하위영역들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비행성향과 가장 관련되는지 그 관계를 규명하고 스트레스 대처 중재프로그램과 비행 예방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다루어져야 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행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행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의 변인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의 변인 중 비행성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시에 있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G시 소재 일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의의와 목적을 설명한 후 학교장의 연구조사허락으로 교장, 교감, 그리고 보건교사와 함께 효율적인 연구수행방법의 전략을 세우고,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중학생의 발달상황 위기나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1학년과 3학년을 제외한 2학년 재학생으로써 14개의

반 중 7개 반을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40명을 대상으로 9월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생변수의 통제를 위해 시험기간을 피했으며 같은 환경의 학교 내에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조사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252명 학생들에게만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방식, 그리고 비행성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는 자가보고법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작성소요시간은 총 15-25분 정도였으며, 전체 회수율 98.6% 중 불성실한 응답과 기록누락 설문지 29개를 제외한 22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요구에 따른 긴장을 인내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간이 가진 속성이다(Block & Kremen, 1996).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R 89)를 Yoo와 Shim(2002)이 번안·수정 보완한 개인의 탄력성 정도에 대한 자가 측정도구이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의 하위 영역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 이었다.

● 스트레스 대처방식(Stress Coping Styles)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인가 하는 행위 또는 위기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Folkman & Lazarus, 1985). 대처방식의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를 토대로 하여, Kim(1987)이 구성요인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문항의 일부를 수정한 6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대처, 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구성되며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구분하며, 소망적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 그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0, 아주 많이 사용하면 3점으로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의 대처기전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 는 .87에서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적극적 대처는 .86, 소극적 대처는 .87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 비행성향(Delinquency Disposition)

비행성향은 비행가치, 비행하위문화, 비행성격, 또는 비행친구 접촉 등의 요인들과 같이 비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경향을 말한다(Kim, 1994). 본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 8문항, 비행친구의 수와 친구의 비행성을 묻는 5문항, 비행적 가치관 3 문항, 충동적인 성격특성 6문항으로 측정한다. Kim(1994)의 비행성향 점수를 말한다. Likert 5점 척도로 확실히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나뉘어졌으며 역 문항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또래동조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69, 친구들과의 비행성 척도의 Cronbach's α .61, 비행적 가치관 Cronbach's α .83, 충동적인 성격특성 Cronbach's α .75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69, .59, .82, .9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4.0 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행성향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여러 개의 독립변인과 두 개 이상의 종속 변인의 값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두 변인간의 가장 높은 예측 평가변수를 알기위해 SAS 9.1 TS를 이용하여 Canonical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 총 223명으로 남학생은 60.5%, 여학생은 39.5%였다. 경제 상태는 87.9%가 중간정도였으며, 종교는 무교 또는 기타가 48.8%로 가장 많았고, 불교 27.4%, 기독교 16.6%, 천주교 7.2%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 행동, 심리 세 영역의 코널 스트레스 증상 체크리스트에서 한국의 스트레스상황에 맞는 10개씩의 증상 중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는 행동적 스트레스 증상 51.6%, 신체적 스

트레스 증상 43.9%,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 41.3% 순이었다. 10개 중 네 개 이상의 스트레스 증상은 심리적 증상에서 19.7%, 신체적 증상 11.2%, 행동적 증상 5.0% 순이었다. 스트레스의 근원으로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61.4%,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 18.4%,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 11.7%,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4.9%, 그리고 기타 3.6%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Stress (N=223)

Characteristics		N	%
General	Sex	Male	135 60.5
		Female	88 39.5
	Economic status	High	20 9.0
		Middle	196 87.9
		Low	7 3.1
	Religion	Buddhism	61 27.4
		Christianity	37 16.6
		Catholicism	16 7.2
		Others	109 48.8
	Physical stress symptoms	More than four	25 11.2
Three to four		70 31.4	
One to two		98 43.9	
None		30 13.5	
Behavior stress symptoms		More than four	11 5.0
	Three to four	50 22.4	
	One to two	112 51.6	
	None	47 21.0	
Stress symptoms	Psychological stress symptoms	More than four	44 19.7
		Three to four	54 24.2
		One to two	92 41.3
		None	33 14.8
Source of stress	Related to study	137 61.4	
	Related to family	41 18.4	
	Related to friends	26 11.7	
	Related to self	11 4.9	
	Others	8 3.6	
Total	223	100.0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정도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2.78이었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대인관계는 2.97, 활력성 2.85, 호기심 2.83, 낙관성 2.69 그리고 감정통제는 2.5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1.23 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는 1.31 점으로, 적극적 대처의 평균은 1.16으로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보다 높았다. 소극적 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는 1.41, 정서중심적 대처는 1.21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의 문제중심 대처 전략은 1.21, 사회적지지 추구는 1.10점이었다. 비행성향의 평균은 2.53이었으며 비행성향의 하위영역 중 비행의 가치성은 2.81, 또래동조성 2.77, 충동성 2.40, 친구들의 비행

성은 2.09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and Delinquency Disposition (N=223)

Variables	Subgroups	M	SD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2.97	.03
	Energy or Vitality	2.85	.04
	Emotional control	2.57	.04
	Curiosity	2.83	.03
	Optimism	2.69	.04
	Total	2.78	.03
Stress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1.21	.03
	Seeking social support	1.10	.04
	Emotional-focused coping	1.21	.03
	Wishful thinking	1.41	.03
	Active coping	1.16	.06
	Passive coping	1.31	.06
Total	1.23	.05	
Delinquency disposition	Peer alignment	2.77	.04
	Delinquency of friends	2.09	.04
	Value of delinquency	2.81	.06
	Impulsion	2.40	.04
	Total	2.53	.06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비행성향 간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비행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적극적 대처($r=.277, p<.0001$)에는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소극적 대처($r=-.488, p=.0001$), 비행성향($r=-.610, p=.0001$)과는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적극적 대처는 비행성향($r=-.207, p=.002$)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극적 대처는 비행성향($r=.248, p=.0001$)과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23)

	Ego-resilienc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Delinquency disposition
Ego-resilience	1			
Active coping	.277*	1		
Passive coping	-.488*	-.285*	1	
Delinquency disposition	-.610*	-.207*	.248*	1

* $p < .01$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정준상관관계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두 변인 군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

Table 4.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N=223)

Canonical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Squared canonical correlation	Eigen value	Likelihood ratio	Proportion	F value	df	Pr>F
The 1st	.698	0.487	0.948	0.423	0.8245	5.33 **	36	<.001
Variable group	Variables	Canonical coefficients		Canonical correlation	Canonical cross correlation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399		0.6482	0.4522			
	Energy or Vitality	0.1142		0.6751	0.4710			
	Emotional control	0.1400		0.5369	0.3745			
	Curiosity	0.4824		0.8109	0.5657			
	Optimism	0.2392		0.6870	0.4792			
Stress coping styles	Problem-centered coping	3.8492		0.4561	0.3168			
	Seeking social support	4.3407		0.3164	0.2207			
	Emotional-centered coping	5.3250		-0.4317	-0.3011			
	Wishful thinking	4.4529		-0.7401	-0.5163			
	Active coping	-6.3999		0.4381	0.3056			
	Passive coping	-9.0741		-0.6917	-0.482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0.01 level(2-tailed)

준상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과 두 개 이상의 종속변인 사이의 상호구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각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 수 있다. 제 1 정준함수의 Wilk's λ 값이 0.423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 값은 82.45%를 나타냈다. 정준부하량에서 자아탄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이 낙관성이었다. 또한 두 변인 군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한 정준교차부하량 분석에서 변인들을 대표하는 정준변량과 해당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낙관성이었으며 감정통제가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소망적사고 대처이었다(Table 4).

자아탄력성과 비행성향의 두 변인 군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준상관분석 결과 제 1 정준함수의 Wilk's λ 값도 0.467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설명력 값은 88.85%를 나타냈다. 정준부하량에서 자아탄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활력성이었고 그 다음이 낙관성이었다. 또한 두 변인 군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한 정준교차부하량 분석에서 변인들을 대표하는 정준변량과 해당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에서 비행성향에 가장 영향을 주는 높은 평가변수는 활력성이었고 그 다음이 낙관성이었으며 감정통제가 가장 낮았다. 비행성향에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충동성이었다(Table 5).

논 의

중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주된 주관적 스트레스의 근원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이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적 환경

자아탄력성과 비행성향과의 정준상관관계

Table 5.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Delinquency Disposition (N=223)

Canonical function	Canonical correlation	Squared canonical correlation	Eigen value	Likelihood ratio	Proportion	F value	df	Pr>F
The 1st	.691	0.478	0.916	0.467	0.8885	7.46**	24	<.001
Variable group	Variables	Canonical coefficients		Canonical correlation	Canonical cross correlation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513		0.6090	0.4210			
	Energy or Vitality	0.4971		0.8198	0.5668			
	Emotional control	0.3035		0.6082	0.4205			
	Curiosity	0.1657		0.6348	0.4389			
	Optimism	0.2569		0.7270	0.5026			
Delinquency disposition	Peer alignment	0.0495		-0.1485	-0.1027			
	Delinquency of friends	-0.1431		-0.2218	-0.1533			
	Value of delinquency	-0.2052		-0.7263	-0.5021			
	Impulsion	-0.8438		-0.9797	-0.677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0.01 level(2-tailed)

인 입시위주로 인한 사회적 병폐로 받아들여진다.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정도가 비행에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Ko & Yun, 2007; Park & Moon, 2006) Choi(1986)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는 문제중심대처와 반비례 관계 즉, 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한다는 보고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망적사고와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보였다. 또한 Choi와 Yoo(2004)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일반청소년인 경우 소망적사고, 문제회피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그리고 감정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Lee와 Park(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활력성과 대인관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호기심과 낙관성, 감정통제 순으로 낮았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 중 감정통제가 가장 낮았음을 볼 때 중학생의 스트레스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시 감정통제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은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소극적 대처와는 역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보였다. 이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비탄력적인 사람보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전략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서 통합적인 수행능력과 융통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Lee & Park, 2002). 즉,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가 경직된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부정적 대처를 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비행성향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Edward(1996)의 낮은 자아가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인 청소년의 비행성향을 단독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실득력이 부족하다(Sin, 2001). 따라서 여러 비행성향 중 또래의 동조성, 친구들의 비행성, 비행적 가치관, 충동적인 성격 특성이 본 연구에서 측정되어졌다. 청소년기에는 점차적으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행유발 요인은 비행 또래친구와의 접촉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Kwon(1998)의 연구결과와 자아가 낮은 청소년은 보상의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진시키려고 비행을 하거나 친구들과 동조한다는 Carlson(1981)의 보고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러 자아탄력성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낙관성이었다. 이는 호기심이 많고 낙관적일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호기심이란 내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탐색행동으로 갈등 상황의 해결과제와 스트레

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낙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인생에서 동기, 내구력, 수행 수준이 높고(Taylor & Brown, 1988; Park & Hyun, 2007) 낙관성과 적극적 대처양식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Kim, 2003). “낙관성은 자신이 겪는 실패를 일시적인 상황이라 생각하고 역경에 맞서서 견뎌내면 그 다음 행동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한 Seligman(1991)과 같이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스트레스 평가가 적극적이고 희망적이어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목표에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은 비행성향의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낙관성이 그 다음이었다. 활력성이란 외내적 방향성을 가진다. 외적 방향성을 지닌 활력성은 외향성으로 외부활동을 좋아하는 객관적인 세계를 선호하며 활동적이며 외향성으로 표현되고 내적 방향성을 지닌 활력성은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선호하는 내향성으로 알려져 있다(Chanin & Schneer, 1984). Kim과 Sim(1999)의 청소년 MBTI 성격유형과 비행의 관계에서 내향성보다 외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이 성격유형에서의 활력성과 그 방향성은 비행과 관련된 중요한 예측 변수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낙관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인 행동적 자기조절로 그 사람의 행동과 정서를 결정짓는다는 Scheier, Weintraub와 Carver(1986)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낙관성은 개인의 행동 판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성격으로 비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아탄력성 중 외적 방향성을 지닌 활력성과 비관적 성향이 비행성향의 예측변수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나 문제행동을 줄이는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비행성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주요평가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호기심과 낙관성은 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에 활력성과 낙관성은 비행예방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중학생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개 중소도시인 G시의 중학교 2학년 중 14개의 반 중 무작위로 7개 반을 표집하여 252명 중 미

응답자 29명을 제외한 총 223명 이었다. 연구도구는 자아탄력성 14문항, 스트레스 대처방식 62문항, 비행성향의 22문항으로 총 98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응답 설문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4.0 K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그리고 SAS 9.1 TS를 이용하여 Canonical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2.78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그리고 감정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1.23이었으며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보다 높았다. 비행성향의 평균은 2.53이었으며 비행적 가치관, 또래동조성, 충동적인 성격특성, 친구들의 비행성 순이었다.
- 자아탄력성은 적극적 대처방식과 정 상관관계를, 소극적 대처방식과 비행성향과는 역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내었다.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비행성향이 높았다.
-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가장 영향을 주는 평가변수는 호기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낙관성이었다.
- 자아탄력성이 비행성향에 가장 영향을 주는 평가변수는 활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낙관성이었다.

연구의 제한점

- 한 지역의 대상자로 국한되어 결과의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지역과 생활문화의 차를 고려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상자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대처 중재프로그램에 호기심과 낙관성을, 비행 중재프로그램에 활력성과 낙관성을 전략적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제언한다.
- 자아탄력성의 호기심과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의 범위로 확대시켜 자아탄력성의 주요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 결과 제시된 자아탄력성의 주요평가 예측변수를 포함시킨 스트레스중재 프로그램이나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실무활용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 Pers Soc Psychol*, 70(2), 349-361.

Billings, A. C.,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 Pers Soc Psychol*, 46, 877-891.

Carlson, J. A. (1981).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37, 168-174.

Chang, K. M. (2003). The relationships of ego-resiliency, stress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143-161.

Chanin, M. N., & Schneer, J. A. (198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ian personality dimensions and conflict-handling behavior. *Human Relations*, 37, 863-879.

Choi, H. J., & Yoo, Y. J. (2004). Family functioning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on- delinquent and delinquent adolescents. *Family and Culture*, 16(1), 63-107.

Choi, H. R. (1986). *Str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ognitive-behavioral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Edward, W. J. (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 *Adolescence*, 31(12), 973-989.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 Health Soc Behav*, 48, 150-170.

Jang, S. J. (2006). The relationships of resilience and delinquency disposition on adolescents. *Educational Research*, 25, 541-563.

Kim, D. S. (2000). *The relationship[among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delinquent tendencies, and suicide drive of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im, H. J. (2003). *The effects of optimism and stress coping styles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of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im, J. H. (1987).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M. K., & Sim, H. S. (1999). The relationship of male adolescent psychological types and delinquency.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6(1), 51-65.

Kim, S. N. (1994) *A causal analysis among variable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 K. 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 J. H., & Yun, K.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ego-ego 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f Korean Youth*, 18(1), 185-212.

Kwon, J. E. (1998). *The meta-analysis of juvenile delinquency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Lee, E. M., & Park, I.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The Korean of Family Welfare*, 7(1), 3-24.
- Park, J. S., & Moon, J. W. (2006). The caus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3(2), 91-107.
- Park, Y. S., & Hyun, E. M. (2007).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f adolescent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83-94.
- Roberts, A. R. (1981). *Runaways and non-runaways in an American suburb: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John Jay press; New York.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m & pessim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57-1264.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in, Y. H. (2001). The study of self-esteem, adolescent's delinquency, and role of mother. *Family and Culture*, 13(1), 107-132.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Society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